

'농생명문화산업의 축제로 놀러오세요'

고창 농촌영화제 내일까지

농촌을 테마로 한 '농촌영화제'가 전국 최초로 고창에서 열렸다. 고창군 부안면 북분자클러스터 일원에서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제1회 고창 농촌영화제'는 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땅과 사람, 밥과 생명의 진리를 되돌아보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군은 이번 영화제를 통해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농업이 가지고 있는 질 좋은 농산물을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연계해 새로운 농·생명 문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상생하는 농업·농촌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22일 열린 개막식은 유기상 고창군수와 조규

철 군의장과 군민이 주인공인 영화제의 취지를 살려 귀농귀촌협의회, 한돈협회, 농업경영인회, 새농민회, 한우협회, 청년벤처스 등 지역 내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그린카펫'에 입장하여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영화 '중독'과 '댄서의 순정'의 박영훈 감독, '속닥속닥'의 최상훈 감독, '파밍보이즈'의 장세정 감독을 비롯해 배우 김민규, 소주연, 방승인 김미화 등이 참석하여 무대토론이 이어졌다. 영화제에 참석한 군민들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공모한 농업·농촌 29초 영화제에서 수상한 영화와 개막작 '파밍보이즈'를 감상하고 감독과의 대화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고창 농촌 영화제'는 24일까지 '메밀꽃, 운

수종은남, 그리고 봄봄(감독 안재훈, 한혜진)', '늑대아이(감독 호소만 마모투)', 'P짱은 내 친구(감독 마에다 테츠)', '100억의 식탁(감독 발렌틴 투른)', '카모메식당(감독 오기카미 나오코)' 등 엄선한 10여편의 농업·농촌을 주제로 한 영화가 상영된다. 이밖에도 영화 보는 재미를 더하기 위해 고창의 다양한 농·특산물들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코너가 운영되어 풍성한 영화잔치로 진행되고 있다. 유기상 군수는 "농업과 농촌을 테마로 한 대한민국 최초의 '농촌영화제'가 농업생명산업수도 고창군에서 열려 더욱 의미가 깊다"며 "많은 분들이 영화제를 찾아자연을 만끽하고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무형문화재 공개 발표회 자료사진.

우리 고유의 문화를 계승·발전시키자

부안 무형문화재 원형 공개행사 오늘 보안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서

부안지역 무형문화재인 부안농악보존회(회장 이옥수), 죽염제조(허재근), 사기장(이은규), 대목장(김정락), 가사(김봉기)의 원형 공개행사가 오늘 오후 2시부터 보안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실내무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매년 1회씩 전수자들과 함께 기능과 예능을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해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리 고유의 문화를 계승·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사는 오늘 오후 2시 부안농악보존회의 놀이마당을 시작으로 무형문화재 제34호 가사 김봉기 선생이 우리나라 전통성악의 12가사를 소개하고 무형문화재 제23호 죽염장 효산스님이 백제불가마에서 전승돼 온 3000년 전통의 죽염 제조법을 설명하고 전시할 계획이다. 또 무형문화재 제29호 사기장 이은규 선생이 전통차제작기법으로 재현한

고려청자와 제작기법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무형문화재 제30호 대목장 김정락 선생이 전통적 건축기법의 각 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법, 이음과 맞춤, 집을 짓기 위한 목재의 구입에서 건물의 배치, 건물의 용도에 따른 설계과정, 목재의 치목과 모든 부재를 조립해 건물의 뼈대를 완성하고 벽을 만들고 지붕을 올리고 기와·단청에 이르는 여러 단계를 설명하고 전시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사라져가는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부안의 무형문화재 전 종목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지역에는 중요무형문화재 1종, 도지정 무형문화재 단체 1종·개인 4종 등이 지정돼 활동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순창-담양 인문학 투어 자료사진.

12월엔 '순담 인문학 투어'로 다양한 체험과 교양을

순창군과 담양군이 지역의 역사·문화적 인문학 자원을 연계한 '순담 인문학 투어'를 12월 1일과 6일, '역사로'와 '마을로' 이틀으로 진행한다. 양 군은 2014년 11월 행정, 관광 등 업무협약 이후 다방면에서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7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순담 메타서클 프로젝트' 선정 이후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순담 메타서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담양~순창간 메타세쿼이아 공동 식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는 담양 죽녹원 등 3개소, 순창 강천산 등 3개소를 순환하는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위해 양 군간 최종

실무협의 중에 있다. 이번 투어프로그램도 이 프로젝트의 연장선에서 진행하게 됐다. 다음달 1일에 있을 '역사로' 투어는 순창 귀래정, 객사, 흙어머니산성과 담양 향교, 죽녹원 일원을 둘러보며 문화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인문학적 교양을 쌓는다. 6일에는 '마을로' 투어를 통해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과 담양 슬로시티인 삼지내 마을을 둘러보고 음식만들기와 죽물공예 등 다채로운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저녁에는 '순창의 밤은 예술이다'라는 밤투어가 진행되며 한지등(燈) 체험, 향교·객사·경천변 산책과 문화공연 등 다양한 경험을 체험객에게 선사

할 예정이다. 순창군과 담양군은 이번 인문학 투어의 시범운영 후 부족한 점을 보완해 2019년에 공동 관광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순창의 흙어머니산성과 담양 금성산성을 잇는 '산으로'라는 인문학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양 시군이 인문학투어 운영 등 시·도를 넘는 협력과 관광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투어를 희망하는 참가자는 오는 28일까지 접수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미생물산업사업소(650-5475)와 방랑씨통(010-6861-0445)에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원형 기자

내일 익산가람문학관서 가람시조문학제·백일장 개최

익산시는 제10회 가람시조문학제와 제10회 전국가람시조백일장이 내일 가람문학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가람기념사업회(회장 양준숙)에서 주관하는 가람시조문학제에서는 가람 이병기 선생이 서거한지 50년이 되는 해를 맞아 '현대시조, 길을 묻다'라는 주제 아래 세미나를 실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시조시인협회 이사장인 이지엽 교수(경기대)의 '현대시조에 나타난 가람시조 혁신정신'이란 논문을 비롯하여, 권영민 교수(서울대)의 '현대시조의 격조 혹은 과거', 오세영 교수(서울대)의 '하나의 시안으로서 시조시형', 박영주 교수(강릉원주대)의 '사설시조의 산문성과 구조적 분방성', 최한선 교수(전남도립대)의 '가람시조의 전폭어의 기대지평과 상상의 미학' 등 5편의 논문

을 발표한다. 이어서 오후 2시부터는 전국가람시조백일장이 열린다. 백일장은 대학일반부, 초중고 학생부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대학일반부 장원에게는 교육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그리고 문단 등단 자격을 부여한다. 참가비는 없으며 학생부 장원에게는 교육감상, 차상에게는 전북서부보훈지청상을 수여한다. 학생들이 백일장에 참가하는데 편리하도록 13시에 모현도서관, 남성고 정문, 함열여고 앞에서 행사장에 가는 무료 버스를 운영한다. 그 밖에도 여산면종플단과 여산출신 성악가 김성진 씨의 식전 축하 공연과 여산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준비한 먹거리, 호산춘 시음회 등이 준비되어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